

KWANGSHIN NEWS

2025 AUTUMN

VOL. 107

NEWS Letter



|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

사람은 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그 지속성이 인간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그렇게 한국도
광신도 유지될 것입니다.

”

광신기계공업(주)
Harry Kwon

끝도 없을 것 같던 무더위도 결국에는 자연의 순리대로 변해갑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니다. 순리대로 돌아가는 계절과는 상관없이 미국발 태풍은 언제 잠잠해질지 알 수가 없네요.

여름 끝자락에 친구부부모임에서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40년만에 화엄사도 보고 고등학교 때 만난 깊은 인연도 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추억도 친구도 오래될수록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친구들 포함 고등학교 동창들의 환갑잔치도 열었습니다. 졸업한지 40년이 지났고, 이미 은퇴했거나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간 친구들도 있더군요. 티격태격 지금까지도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지만 일과 삶에 대한 수다와 잘 산다는 것, 의미 있는 남은 시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리산에 가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정리되고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것을 보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라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을 같이 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지만 아직 무역협정이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세 제국주의의 개념이 식민지 시대로 와서 변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의미를 사전에 추가해야 할 듯 합니다.

30년 넘게 FTA로 자유무역시대를 추구해왔던 미국과 유럽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WTO도 의미 없고 UN마저도 기능이 정지된 듯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관철하고자 하면 모두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선의나, 대의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일은 국익 앞에, 아니 정치적 유불리 앞에 무력합니다. 시장이 제일 크고 힘센 미국이 초강대국의 '가오'나 '체면'은 필요 없고 적자를 메우고 나만 살면 된다 식의 조폭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면 봐준다고 합니다. 30년만에 돈과 자본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화 '콘클라베'를 보았습니다. 연기를 잘 하는 배우들 덕분에 감동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교황청 내부의 권력다툼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천년 넘게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좋은 대사와 장면도 많습디만 "확신이 제일 위험하다"는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마지막까지 의심하셨습니다.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살아있는 까닭도 의심과 손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확신에 차 있다면 그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믿고 가면 안됩니다. 다시 나라 안의 불확실성을 다잡고 산업의 모든 분야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걱정은 우리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희망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지출에 비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 많은 듯 해서 걱정입니다. 제조업의 몰락은 AI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제기초를 흔들 수도 있는 큰 일입니다. 좋아질 거라고 단순히 확신하거나 희망의 계획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가 좋지 못한 것은 세계적인 무역의 변화도 물론 이유가 되지만 반세기 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기 보다는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본과 세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86세대로 대표되던 제조업 종사자가 은퇴하거나 밀려나서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빨리 안정적인 고용직 일자리로 돌려 놓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AI시대에 이들을 예술가나 정보 서비스업으로 재교육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를 망원경으로(거시적) 보지 말고 현미경으로 보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구석지고 잘 안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괜찮아요”라고 희망을 계획하는 것은 미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영특하고 현명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비전과 기술을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는 일과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환갑잔치(?)의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10년 남은 제 계획을 희망과 바람을 섞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바꾸지 못 합니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몰비용(Sunk Cost)이 들더라도 가다가 중단할 때는 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이지만 재미 없는 영화는 본전 생각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청소의 기본은 버리기입니다. 과거의 비용은 ‘제로’로 보고 내일로 가야 합니다. 제가 그 그릇이 못되면 나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10년 계획입니다. 서서히 버리고 나가기.

환갑 잔치하면서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동창회라는 모임도 곧 역사적 운명을 맞을 겁니다. 50대 이하는 동창회라는 조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가 맞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저나, 친구들 모두 이제 다음 모임이 기약이 없으니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굿바이가 아니라 아무 탈 없이 평온한 상태인 안녕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람은 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그 지속성이 인간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그렇게 한국도 광신도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30년 넘게 온 세상을 다녔습니다. 덕분에 많은 곳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보니 제 고향은 언제나 여기였습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모두 제 맘 속에 있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마음으로 내년을,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P.S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를 들어보세요. 깊은 가을의 완숙한 서정이 차분히 스며듭니다.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도 함께 감상해보세요. 담백한 목소리와 서정적 선율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클라리넷 5중주 전곡 Op.115 | 브람스
원곡 : 브람스 (Brahms)

1891년 클라리네티스트 리하르트 뢰플트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완숙미와 노련미가 응축된 브람스의 가을을 담은 명곡.



나뭇잎사이로 | 조동진

1980년 9월 15일에 발매된 조동진 특유의 절제된 표현 속에 자연의 서정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대표적인 곡



| 잊힐 용기, 행인8 또는 주민13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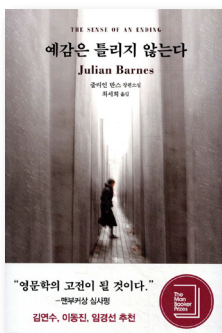
영화가 끝나고 나면 스크린에는 천천히 엔딩 크레딧이 흐릅니다. 주연 배우부터 조연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일한 스태프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나열됩니다. 그중에는 행인 8 주민 13처럼 낯선 이름과 얼굴로 잠깐 등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옆에 적힌 이름 세 글자는 아마 본인과 가족 외에는 기억하는 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인생도 영화 속 그들과 같습니다. 수많은 얼굴 중 하나로 어떤 장면에선 스쳐 지나가듯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잊히는 인생, 가족이나 지인의 기억 속에 잠시 머물 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기억되기 위해 기록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존재의 흔적을 남기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기록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오랫동안 알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일일 겁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맨부커 상을 수상한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그의 정의가 책을 읽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빛어지는 확신이다”. 과연 한 개인이 살아온 발자취를 역사라는 거대한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나만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곧 개인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일단 부정확한 기억은 인정해야겠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불충분한 문서에 대한 그의 정의는 누군가의 편향적인 의도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억하며 기록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기록되지 않는, 잊혀 질 결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남기고 싶은 말을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첫 줄에 나를 기억하지 말 것, 나를 기념하기 위한 그 어떤 물건도 남기지 말 것이며 어떤 행위도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부의 이름이 빨리 잊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대를 잇고 또 60년 넘게 살았다는 건 비록 성공이나 출세의 범주에 들지 못했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자위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잊히고 싶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우리 회사와 함께 보냈습니다. 나름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해내려 노력했다는 것이 그나마 남기고 싶은 업적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운이 따랐고 오랜 근속을 통해 높은 직책도 얻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냐 질문한다면 주저 없이 ‘아니요’라고 답할 겁니다.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며 나름의 결실도 얻었으니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온 것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잊히는 일뿐입니다. 세월 속에서 행인 8이나 주민 13으로...

끝으로 우리 회사 광신기계공업 주식회사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며 저의 엔딩 크레딧 이후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그의 정의가 책을 읽은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빛어지는 확신이다”.

-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 -



KWANGSHIN NEWS

광양 LNG 터미널 7, 8호기 탱크 증설 공사용 SOG 압축기 출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광양 LNG 터미널 7호기 및 8호기 탱크 증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SOG (Send Out Gas) 압축기 2세트가 공장 검사를 마친 후 9월 출하됐다. 이번 설비는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은 포스코이엔씨가 발주한 것으로, KSOPTNL-2단, 1800KW 압축기다. 압축기 패키지는 API-661 열교환기와 Dual PLC가 적용된 제어 판넬 등이 포함돼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탱크에 보관 후 수요에 맞추어 가스 배관망에 공급하는 LNG 터미널에서는 압력의 유지, 안정적인 송출, 배관망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해 압축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SOG 압축기 역시 LNG 터미널의 핵심 설비로 높은 가동률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2018년 광양 LNG 터미널 5호기 탱크 증설공사에 투입된 우리 회사의 SOG 압축기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으며, 이번 공사에 투입되는 압축기 패키지 역시 고효율 설계, 저진동 및 저소음 구조로 LNG 터미널의 핵심 설비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HEADLINE NEWS



DELIVERY OF SOG COMPRESSORS FOR GWANGYANG LNG TERMINAL TANK EXPANSION (NO.7&8)

Two sets of Send Out Gas (SOG) compressors to be installed in the Gwangyang LNG Terminal No. 7 and No. 8 tank expansion project by POSCO International have successfully completed factory inspections and were shipped in September. The equipment, ordered by POSCO E&C, the EPC contractor for the project, consists of KSOPTNL two-stage, 1,800KW compressors. Each compressor package includes an API-661 heat exchanger and a control panel with Dual PLC, ensuring enhanced safety and efficiency. At LNG terminals, where liquefied natural gas is stored in tanks and then supplied to the pipeline network according to demand, compressor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pressure, ensuring stable gas send-out, and meeting pipeline system requirements. The SOG compressor, regarded as a core facility, demands high reliability and continuous operability. Notably, the SOG compressor supplied by KwangShin for the 2018 expansion of the Gwangyang LNG Terminal No. 5 tank has been operating stably to date. Likewise, the newly supplied compressor packages for the No. 7 and No. 8 expansion are also expected to serve as key facilities of the LNG terminal, backed by high-efficiency design, low-vibration, and low-noise features.



대형 압축기 중량 측정을 위한 로드셀 저울 신규 도입

2025년 생산본부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중량 측정 장비가 도입됐다. 그동안 대형 압축기의 중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예상치를 기반으로 포장명세서를 작성해 왔으나, 이번 장비의 도입으로 보다 정확한 중량 측정이 가능해졌다. 생산부 담당자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저울의 사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중량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고객사의 물류 계획 및 설치 검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한국 AND사의 로드셀 저울(Load Cell Scale)로 디지털 표시가 가능한 전자식 저울이다. 20KG 단위로 최대 35톤까지 측정할 수 있어 대형 장비 중량 측정에 특화되어 있다.

NEW LOAD CELL SCALE FOR LARGE COMPRESSOR WEIGHT MEASUREMENT

As part of the 2025 Production Division business plan, a new weight measuring device has been installed. Until now, due to the lack of equipment capable of directly weighing large compressors, packing lists had been prepared based on estimated weights. With the adoption of this new device, much more accurate weight measurement has become possible. A representative from the Production Division stated, “With the use of this newly installed scale, we are now able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more precise weight information,” adding, “We expect this data to serve as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our customers’ logistics planning and installation planning”. The newly installed equipment is a load cell scale manufactured by AND Korea, a digital electronic scale with a display. It can measure up to 35 tons in 20 kg increments, making it particularly suitable for weighing large-scale equipment.



FLUXYS, BELGIUM WINKSELE 프로젝트 바이오가스 압축기 수주

우리 회사는 2024년 벨기에 Fluxys의 Winksele Methane Emission Reduction 프로젝트에 성공적인 바이오가스 압축기의 납품에 이어, 2025년 신규 Winksele 프로젝트 압축기 공급자로 또다시 선정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압축기는 GEO-AII 75KW 4단 압축기 1대이며,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로 광신기계가 Main Contractor로서 북유럽 대리점인 Regaco A/S, Denmark와의 공동 협업으로 설치 및 시운전까지 담당하게 된다. 신규 계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6월 16일 및 17일 이틀 간에 걸쳐 광신의 영업 및 설계담당자들과 Regaco의 Project Manager가 Fluxys Winksele 현장을 방문하여 Kick off meeting에 참석하였으며, 해당 압축기는 2025년 12월 선적을 목표로 제작 진행 중이다.

AWARD OF BIOGAS COMPRESSOR SUPPLY FOR FLUXIS WINKSELE PROJECT, BELGIUM

Following the successful delivery of Biogas compressors for the Winksele Methane Emission Reduction project of Fluxys, Belgium in 2024, our company has once again been selected as the supplier for the new Winksele Project in 2025. The equipment to be supplied is one GEO-AII 75kW four-stage compressor, and, as with the previous contract,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will be carried out in close cooperation with our Scandinavian distributor, Regaco A/S, Denmark.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is new contract, a kick-off meeting was held at the Fluxys Winksele site on June 16th and 17th, with the participation of sales and engineering personnel from KwangShin and the Project Manager from Regaco. The compressor is currently under production and is scheduled for delivery within the end of 2025.

TRADEX 발주 CNG 압축기 입회 시운전

TRADEX에서 발주한 GEO-B 250HP 내압식 CNG 압축기 3대에 대한 입회 시운전이 7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입회 검사에는 TRADEX의 Rupeshkumar Rambuddi와 EXCELSIS의 Ashish Ghanshyam Gajbhiye가 방문하였다. 유량, 압력, 온도 등 주요 성능 시험이 모두 완료된 압축기는 TRADEX가 지정한 패키징 공장으로 선적되었다. 또한, 입회 기간 함께 개최된 영업 전략회의를 통해 광신기계와 TRADEX는 향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보다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FACTORY ACCEPTANCE TEST OF THREE GEO-B -250HP CNG COMPRESSORS

Witness commissioning of three GEO-B 250HP high-pressure CNG compressors ordered by TRADEX was conducted over two days, on July 6th and 7th. Rupeshkumar Rambuddi from TRADEX and Ashish Ghanshyam Gajbhiye from EXCELSIS attended the Factory acceptance test. After successfully completing all performance tests, including flow rate, pressure, and temperature, the compressors were shipped to the packaging facility designated by TRADEX. In addition, during a business strategy meeting held alongside the commissioning, KwangShin and TRADEX agreed to engage in more regular exchanges to promote sales activities in the African market, particularly in Nigeria, South Africa, and Tanzania.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한 열교환기 업체 현장 조사 실시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우리 회사의 품질, 구매 및 기술 책임자가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 열교환기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출장은 세계 시장의 인증 및 설계조건이 다변화되고 있기에 보다 경쟁력 있는 솔루션 제안을 위한 공급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창저우시와 쑤보시에 소재한 열교환기 제조업체를 방문 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의 경영 현황, 보유 장비, 국제 인증 취득 여부 등의 기초 조사는 물론, 우리 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설계 적합성, 시험 및 검사 체계와 현장 공정관리 수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토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경쟁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공급망 조사 및 실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SITE VISITS TO HEAT EXCHANGER SUPPLIERS IN CHINA FOR GLOBAL SOURCING EXPANSION

On July 15 and 16, our company's Quality, Procurement, and Engineering managers conducted a business trip to China to perform on-site evaluations of heat exchanger suppliers. This trip was carried out as part of our global sourcing expansion policy, driven by the need to offer more competitive solution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iversity of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design standards across global markets. The team visited heat exchanger manufacturers located in Changzhou and Zibo,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each supplier's business operations, equipment assets, an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tus. The evaluation also included a rigorous assessment of design compliance, test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and on-site quality control, all in accordance with our company's internal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KwangShin will continue to expand and diversify its global supply chain in order to deliver agile and competitive solutions to meet the evolving needs of international markets.

모잠비크 천연가스 사업 정책 실무자, 광신기계 공장 방문

모잠비크 천연가스 활용 체계 구축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잠비크 광물자원 에너지부 (MIREME) 및 관련 공공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실무자들이 7월 17일 우리 회사 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산업시찰에는 모잠비크 내 천연가스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 주요 기술 파트너인 우리 회사의 생산 역량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특히, 모잠비크 시장 내 첫 CNG 압축 설비 공급을 위해 협력 중인 MozGNV의 Liudmil Portugal 대표이사도 방문단과 함께 참여하였다. 현재 우리 회사는 MozGNV로부터 모잠비크 현지의 CNG 가상 파이프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ther station 및 Daughter station용 압축 설비를 수주하여 제작 중에 있다. 이 설비에는 CNG 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의 충전 인프라 장비가 포함되며, 전체 시스템은 2025년 연말 모잠비크로 선적을 목표로 제작 중에 있다.



INDUSTRIAL VISIT BY MOZAMBIKAN OFFICIALS ON NATURAL GAS UTILIZATION POLICY

As part of the training program for establishing a Natural gas utilization system in Mozambique, a delegation of policy practitioners from the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MIREME) and related public institutions visited our company's facility on July 17.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visit wa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our company's production capabilities and product offerings, which play a key role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Natural gas-based energy infrastructure in Mozambique. Notably, Liudmil Portugal, General Manager of MozGNV, also joined the delegation. MozGNV is our strategic partner in supplying Mozambique's first CNG compression systems. Our company is currently manufacturing compression equipment for both Mother and Daughter stations, following an order from MozGNV aimed at building a virtual CNG pipeline system in Mozambique. The equipment includes CNG compressors, storage vessels, and dispensers, and the entire system is scheduled for shipment to Mozambique by the end of 2025.

경상국립대학교 RISE 산업단과 산학공동기술개발 협약 체결

우리 회사는 7월 30일 경상국립대학교 RISE 산업단과 산학 공동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개발의 주제는 “고압 천연가스 밸브 내에서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유량계수의 수치계산”이며, 광신기계는 공정 적합성 검토, 시제품 제작, 시스템 조립 및 시운전 테스트와 성능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제는 LNG 액화 공정의 공정제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고압 밸브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LNG 플랜트 관련 산업의 전, 후방 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과제 책임자인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의 이 치우 교수와 우리 회사의 권 병수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SIGNING OF AN INDUSTRY-ACADEMIA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AGREEMENT WITH THE RISE INDUSTRIAL COMPLEX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July 30, our company signed an industry-academia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agreement with the RISE Industrial Complex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theme of this project is “Numerical Analysis of Flow Coefficients in Relation to Changes in Physical Properties Inside High-Pressure Natural Gas Valves”. Under this collaboration, KwangShin Machine will be responsible for process suitability review, prototype manufacturing, system assembly, commissioning test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project aim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high-pressure valves, which play a key role in process control for LNG liquefaction. Once successfully completed, it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upstream and downstream ripple effects across industries related to LNG plants.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Professor Chiwoo Lee of the Department of Future Automotive Engineering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ho serves as the project director, and Byungsoo Kweon, Vice President of our company.



광신기계, 창립 58주년 기념식 맞아 60주년 도약다짐

8월 15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임직원들과 함께 미래 6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환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업무 복잡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고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현장은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정기적인 조화와 절차 준수를 통해 당면시되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30주년 근속자 3명을 포함해서 총 26명의 근속 기념자와 우수 사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다가올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로 결의를 다졌다.

KWANGSHIN HOLDS 58TH ANNIVERSARY

KwangShin celebrated its 58th founding anniversary on August 14th with a commemorative ceremony, during which executives and employees pledged to take a new leap forward toward the company's 60th milestone. In his congratulatory address, President, Harry Kwon stressed that as customer demands and business complexity continue to rise, it is essential to rearm with a mindset that allows for proactive and customer-oriented problem solving. He further emphasized that safety must always remain the top priority in manufacturing, urging employees to remain vigilant in regular briefings and procedural checks so that important details are not overlooked simply because they may seem routine. The ceremony also honored long-serving employees, including three marking 30 years of service, with a total of 26 employees receiving long-service awards and commendations for excellence. The entire workforce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greet the upcoming 60th anniversary with renewed determination and unity.

사우디아람코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시행 (다이하프램 압축기)

우리 회사 다이하프램 압축기의 사우디아람코 공급자망 등록을 위한 공장 심사가 시행되었다. 이번 심사는 8월 25일에서 27일 사흘간 설계 부문과 품질경영시스템 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엄격히 수행되었다. 사우디아람코는 플랜트 운전 과정에서의 가스누출 방지 및 가스플레어 배관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설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검증된 다이하프램 압축기 제조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회사는 이미 2019년 사우디아람코의 ISO-13631 왕복동압축기 패키지공급업체로 인증되었으며, 2025년 3월 자격연장심사 또한 승인받았다. 현재 광신기계는 최대 200KW 모델을 포함한 다이하프램 압축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압 수소충전소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설비 분야에 공급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SAUDI ARAMCO QUALITY MANAGEMENT SYSTEM AUDIT CONDUCTED (DIAPHRAGM COMPRESSOR)

A plant audit was conducted for the registration of our Diaphragm compressors in Saudi Aramco's supplier network. The audit was carried out strictly over three days, August 25 to 27, covering both Engineering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divisions. Saudi Aramco is currently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in pre-design to prevent gas leakage during plant operations and to minimize flare gas piping, and in connection with this, the company is also undertaking a process of pre-qualifying proven Diaphragm compressor manufacturers. Our company was certified in 2019 as an ISO-13631 High-speed reciprocating compressor package supplier for Saudi Aramco, and the qualification renewal audit for March 2025 has also been approved. KwangShin Machinery currently holds a Diaphragm compressor portfolio that includes models up to 200KW and has a proven track record of supplying equipment to various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applications for high-pressure hydrogen refueling stations.



대만 고압가스산업협회 임원단 광신기계 방문

대만 고압가스 산업협회 소속 임원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방문단은 Air Products Taiwan, Linde-Lienhwa Taiwan, Taipei Oxygen 등 대만 주요 가스회사 임원 26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광신기계 산업용 압축기의 생산 시설과 납품 실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다이하프램 압축기를 포함한 수소충전소용 고압 압축 설비의 생산공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어 우리 회사의 충전 시스템이 설치된 인근 수소충전소를 시찰하며 적용 사례를 점검했다. 방문단 대표는 광신기계의 생산관리 현황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대만 고압가스 산업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TAIWAN HIGH PRESSURE GAS INDUSTRIAL ASSOCIATION EXPLORES COLLABORATION WITH KWANGSHIN

A delegation from the Taiwan High Pressure Gas Industrial Association (TIGA) visited our company to explore potential collaboration. The group comprised 26 executives from major Taiwanese gas companies, including Air Products Taiwan, Linde-Lienhwa Taiwan, Taipei Oxygen & others. They expressed strong interest in KwangShin's production facilities and delivery record for Industrial compressors. The delegation also observed on site the manufacturing processes for high-pressure compression systems for Hydrogen refueling stations, including Diaphragm compressors. They then inspected a nearby Hydrogen refueling station equipped with our company's Hydrogen refueling system to review real-world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head of the delegation, the visit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understand KwangShin's production management and product portfolio, and it is anticipated that cooperative relationships will be established within Taiwan's high-pressure gas industry going forward.

WORLD HYDROGEN EXPO 2025 참가 확정

우리 회사는 오는 2025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World Hydrogen EXPO 2025 (H2 MEET 2025)에 전시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수소 충전설비 및 충전소 미니어처를 출품하여, 한층 향상된 기술력을 관람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회사는 액화충전소 증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압축기 및 충전기를 현재 제작 중에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특이점은 액화 과정의 초저온 BOG (Boil Off Gas)를 회수하여 이를 0deg.C로 가열 후, 고압 수소가스로 압축해 차량에 충전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초저온 가스의 활용 기반 충전 기술로 국내 수소 충전 인프라의 기술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전시회의 부스 위치는 광신기계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PARTICIPATION CONFIRMED FOR WORLD HYDROGEN EXPO 2025 (H2 MEET 2025)

Our company has decided to participate as an exhibitor at World Hydrogen EXPO 2025 (H2 MEET 2025), which will be held at KINTEX Exhibition Center 2 in Goyang from December 4 to 7, 2025. As in the previous year, we plan to showcase our Hydrogen refueling equipment and the Hydrogen station miniature, presenting visitors with further advancements in our technology. In particular, our company is currently manufacturing Hydrogen Compressors and Dispensers to be installed in Liquefied Hydrogen refueling station expansion projects. A distinguishing feature of this project is a system that recovers cryogenic BOG (Boil-Off Gas) generated during the liquefaction process, heats it to 0°C, compresses it into high-pressure hydrogen gas, and supplies it to vehicles. This system represents the first cryogenic gas utilization-based Hydrogen refueling technology to be introduced in Korea and is expected to further advance the nation's Hydrogen refueling infrastructure. The booth location for the upcoming exhibition will be announced on KwangShin's official website.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설치, 산소압축기 분해점검 실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Zouan-Hounien 지역에 설치되어 운전 중인 산소 압축기의 전면 분해 점검을 위해 우리 회사의 서비스 엔지니어가 파견됐다. 해당 압축기는 미국 Airsep Corporation이 2018년에 발주한 KSDYNL 2단, 165KW 모터 구동 산소 압축기 2기로, 각각 시간당 1557Nm³의 산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출장 담당자 (고객 지원부 선임 김 학동)에 따르면, 광신의 압축기는 현재 Endeavour Mining Corp의 산소 처리 공정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분해 점검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압축기의 주요 부품 교체 및 점검이 시행되었다. 고객 현장 책임자에 따르면, 해당 압축기는 최초 시운전 이후 누적 연수 약 7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됐으며, 이번 정비를 통해 향후 더욱 안정적인 공정 계획 수립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FULL OVERHAUL MAINTENANCE OF OXYGEN COMPRESSORS CONDUCTED IN COTE D'IVO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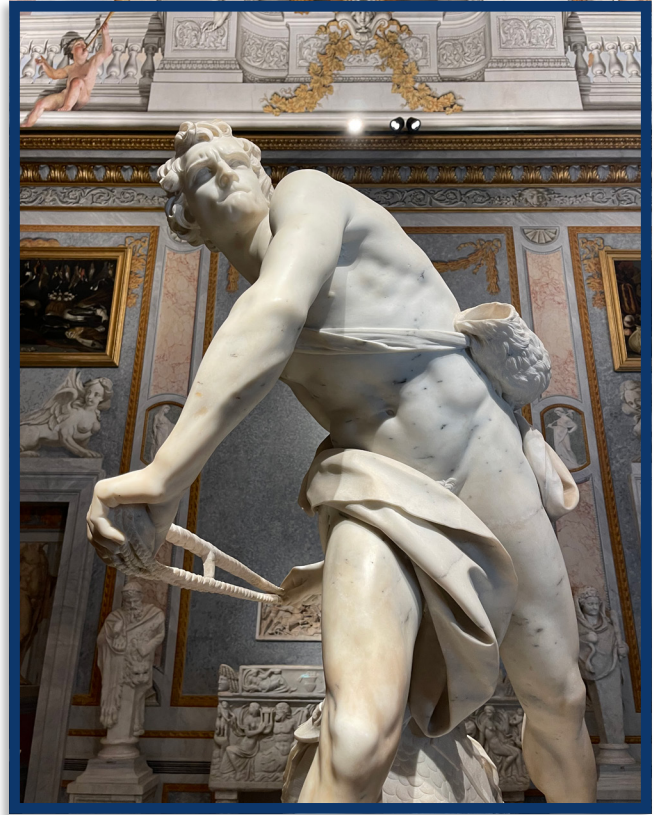
A service engineer from our company was dispatched to Zouan-Hounien, Côte d'Ivoire, to carry out a full disassembly and inspection of Oxygen compressors currently in operation. The equipment consists of two sets of KSDYNL two-stage Oxygen compressors powered by 165kW motor drives, originally ordered in 2018 by Airsep Corporation (USA). Each unit has an Oxygen production capacity of 1,557 Nm³ per hour. According to Hak-Dong Kim, Senior Engineer of the Customer Service verhaul work lasted for about 2weeks, during the main components of compressors were inspected and replaced. The customer's site manager stated that since the initial commissioning, the compressors have been running reliably for approximately seven cumulative years. He added that this the recent maintenance is expected to enable even more stable process planning and operation in the future.

|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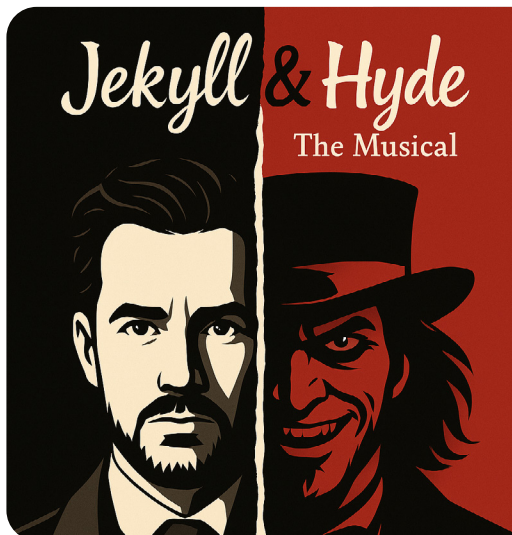
활기찬 영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 때문인지 'I' 형일 듯한 MBTI 테스트 결과지는 항상 'E'를 가르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실 틀 없이 이차륙하는 외향형이 항공모함과 같다면 끊임없이 내면으로 침잠하는 내향형은 잠수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방 주시를 위해 잠망경만 가끔 수면 위로 올려둔 채 깊은 내면의 바다에서 잠항하고 있는 저는 틀림없이 내향형 일 듯한데 말이죠.

잠수함형 인간이어서인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표현도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보다는 '깊이 잠수한다'가 더욱 와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니, 사업 환경의 변화와 경쟁 강도의 격화로 CNG 사업은 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점차 수면 위로 떠밀려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시금 깊이 잠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을 강화하고 폐활량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깊이에 도전할 때는 적합한 장비의 선택 여부도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 사업에 적용해 본다면, 기초체력은 '지속된 연구개발에 의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조력'으로, 적합한 장비는 '최적의 공급망 구축'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활황이라는 한국 조선산업 중 범용 제품의 성격이 강한 컨테이너선 사업은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에 따른 수주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기술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우리 CNG 사업 역시 가격과 납기 경쟁만을 남긴 채 치열한 베어너클 파이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를 목표로 했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동일한 전략을 가진 경쟁자들의 증가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조업에서는 결국 꾸준히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요?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지속된 구매 활동을 통해 강화된 구매 네트워크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중국 시장은 어차피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니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제조력을 향상시킨 레드테크 기업들이 우리 주력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친 물살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체력을 더욱 강화하고 잠수장비의 안정성은 물론 잔여 공기량도 철저히 점검하여, 더 깊은 바다에 다시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노력이 간절한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This is the Moment
by Hong Kwang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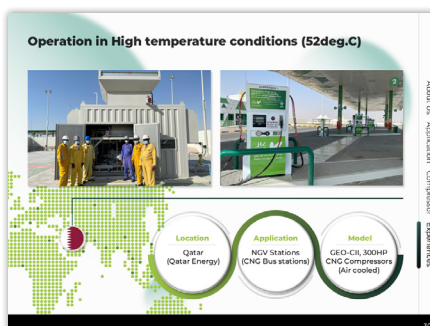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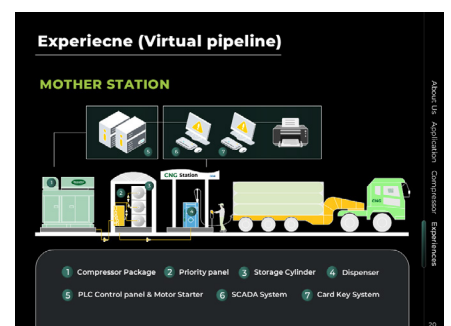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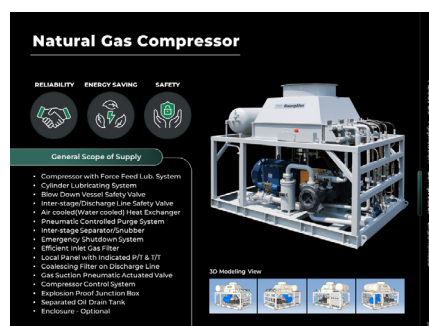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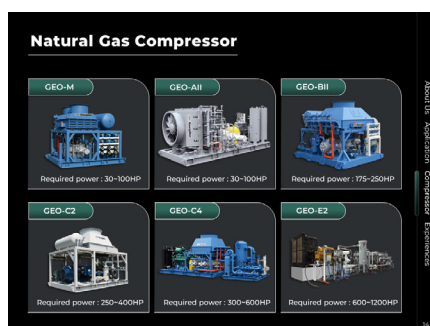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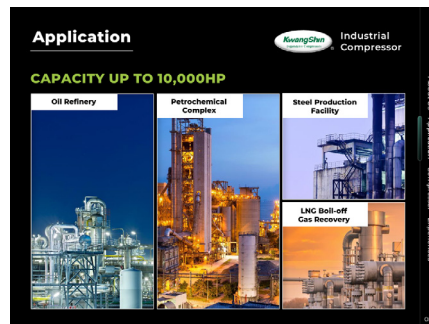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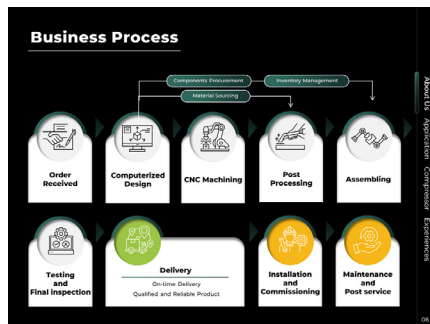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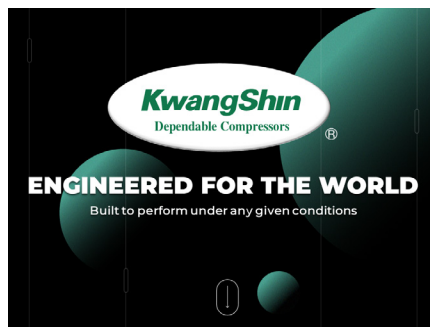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보았습니다. 예매 과정에서 지갑을 박차고 떠났던 지폐들은 흥 광호 배우의 풍성한 성량과 가사 전달력을 통해 카타르시스로 승화되어 제게 되돌아 주었습니다. 모든 뮤지컬 넘버가 주옥같았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속제 때문인지 특히 '지금 이 순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 경영에도 계획, 실행, 점검과 개선(Plan, Do, Check & Act)의 절차를 적용해 본다면, 화두에만 머물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저의 새해 결심에도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보르제세 미술관에서 보았던 베르니니의 다비드상에 담긴 긴장감과 굳은 의지를 지니고 행동에 나서야 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다짐해 봅니다.

회사 및 CNG제품 소개자료 개정 (UPDATED COMPANY AND CNG PRODUCT PRESENTATION)

신규 고객 대상의 회사 및 CNG 압축기 소개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애니메이션 효과 및 영상 자료도 활용하였으며, 전체 34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주요 슬라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We have revised our presentation materials to introduce the company and CNG product lineup to new customers. To enhance clarity, animation effects and video content have been incorporated. The presentation consist of 34 slides in total. (For reference, some of the key slides are as follows)



| 협력기업 소개

압축기 유지보수 및 충전설비 전문제조 기업, GEO Corporation



GEO 코퍼레이션은 압축기 전문 제조기업인 광신기계공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압축기 유지보수와 수소(H₂) 및 천연가스(CNG) 충전설비의 전문 생산을 위해 2008년 4월 22일 설립된 기업이다.

GEO 코퍼레이션은 생산팀, 영업팀, 고객지원팀으로 구성된 14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팀은 각각 CNG 및 수소 충전기를 비롯해, 충전소 관련 부대설비의 제작, 고객 응대 및 기술 영업, 그리고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특히 CNG 및 수소 충전기 분야에서는 광신기계공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총 3,550기의 누적 제조 및 납품 실적을 기록하며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GEO 코퍼레이션은 광신기계의 설계팀 및 생산본부와의 정기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고객 맞춤형 유지보수 솔루션이 제공 가능하다. 이는 장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운영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장비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충남 내포, 광주 진곡, 아산 초사, 평택 평화, 창원 사림 충전소를 포함한 전국 19개 수소충전소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내구재 특성을 가진 압축 설비는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장비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GEO 코퍼레이션은 앞으로도 광신기계 압축 설비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세계에서 가장 길쭉한 나라 칠레를 가다! APCI 산소압축기 시운전



Air Products의 칠레 CMPC Pacifico 프로젝트 용도로 STA Korea가 발주하여 납품된 산소 압축기의 시운전을 위해 칠레를 방문하게 되었다. 칠레에서 운영 중인 CMPC의 Pacifico공장은 라디에타 소나무에서 얻은 목재를 주원료로 연간 50만 톤 이상의 펄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광신의 산소 압축기가 설치된 현장 방문을 위한 여정은 멀고도 길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로 입국하고도 안데스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후에야 콘셉시온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약 2박 3일에 걸친 장거리 여정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지만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안데스 산맥 협곡을 따라 압축기 설치 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깊은 세계 오지에도 설치되어 힘찬 기계음을 내뿜을 우리 압축기를 보니 시운전에 앞서 당당한 자부심에 뜨거운 피가 먼저 끓어오른다.

기존 중국산 산소 생산설비가 노후화로 인해 폐기되어 Air Products에서 자사 VSA (Vacuum Swing Adsorption) 시스템과 함께 우리 회사의 산소 압축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현장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본 프로젝트에 납품된 광신기계의 압축기는 KSDYNL-3단, 265KW 모터 구동 산소 압축기 패키지 1기로 CMPC의 제지 공정에 시간당 약 1412Nm³/hr의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지 원료 생산량이 세계 3위라고 하는 만큼 기존에 설치된 또 다른 노후화 설비의 교체 수요도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머나먼 여정 끝에 이어진 힘든 시운전 과정이었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에 힘입어 완벽히 시운전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시운전을 마친 후 제지 공정에 사용될 산소를 힘차게 뿜어내는 우리 압축기를 보니 향후 교체 수요의 시운전을 위해 또다시 칠레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된다. 칠레 전역에 우리 회사의 로고가 각인 된 압축기가 무한히 전파되길 기원합니다.



Client	Air Products (STA Korea)
Application & Location	VSA (Vacuum Swing Adsorption) System at CMPC Pafifico plant in Chile
Compressor model	KSDYNL-3stage, 3cylinder, 265KW, Electric motor drive Oxygen Compressor package equipped with Water cooled heat exchanger
Quantity	1set

| 한눈에 보는 광신 소식

01 ISO 사후심사



✦ 2025년 06월 18일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SGS의 심사원이 방문하여 ISO9001, ISO14001, ISO45001:2018의 사후심사가 성공적으로 시행 되었다.

ISO Surveillance Audit

From June 16 to 18, SGS auditors conducted a successful surveillance audit for ISO 9001, ISO 14001, and ISO 45001:2018.

02 MIKUNI 기술진 방문



✦ 2025년 07월 01일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3일간 일본 Mikuni 중공업의 설계팀이 방문 하여 고압 수소압축기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Visit by MIKUNI Technical Team

From June 30th to July 1st, a three-day technical exchange meeting was held with the design team of Japanese Mikuni Heavy Industries to enhance high-pressure hydrogen compressor technology.

03 안양석수 CNG 충전소 견학



✦ 2025년 07월 08일

Tradex 와 Excelsis의 입회검사관들이 내압식 압축기 3대가 설치된 안양 석수 CNG 충전소를 견학하였다. 압축기 3대는 모두 38,000시간 이상 정상운전 중이다.

Site Visit to Anyang Seoksu CNG Bus Refueling Station

The inspectors from Tradex and Excelsis toured the Anyang Seoksu CNG filling station, where three CNG compressors are installed. All three compressors have been operating for over 38,000 hours.

04 제4공장 목형보관체계 개편



✦ 2025년 07월 10일

보다 체계적인 목형의 보관 및 사용을 위한 제 4공장 목형보관 시설물 개선 작업이 6월 25일 시작되어 7월 10일 완료 되었다.

The wooden pattern storage system upgrade

The wooden pattern storage system at Plant 4 was upgraded from June 25 to July 10, 2025, to enhance the systematic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sting patterns."

05 모잠비크 CNG 정책 실무자 대상 세미나 발표



✦ 2025년 07월 15일

모잠비크 정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CNG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 세미나에서 우리회사의 충전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Presentation at the Mozambique CNG Infrastructure Policy Workshop

A sales representative from our company attended a technical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CNG refueling infrastructure of the Mozambican government.

06 수소충전소 미니어처 제작완료



✦ 2025년 08월 08일

우리회사의 충전설비로 수소충전소를 구현한 미니어처가 제작완료 되었다. 본사 사무동에 전시되며, 바닥면의 LED 조명을 통해 유체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Hydrogen Refueling Station Miniature Completed

A miniature model based on our company's refueling equipment has been completed. The miniature is distinguished by LED lighting on the base, allowing the flow of fluids to be understood intuitively.

07 광신-MIKUNI 정기 영업회의



✦ 2025년 09월 04일

정기 영업회의를 위해 우리회사의 경영진이 일본 MIKUNI본사를 방문하여, 고압 압축기 시장 공동개발을 포함한 영업전략을 논의하였다.

KwangShin-MIKUNI Regular Business Meeting

Our company's executives visited MIKUNI in Japan for the regular business meeting. They discussed business strategies including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high pressure compressor.

08 원익머트리얼즈(주) N2O 가스압축기 패키지 출하



✦ 2025년 09월 09일

KSDYNL-2단 60KW 모터구동 N2O 가스 압축기 패키지 1기가 시운전을 마치고, 특수가스 제조업체인 원익머트리얼즈(주) 양청공장에 9월 9일 출하 되었다.

Shipment of N2O Gas Compressor Package to WONIK Materials

One unit of KSDYNL-2stage, 60kw electric motor driven N2O Gas Compressor Package was shipped to the Specialty Gas Manufacturer, WONIK Materials' YangCheong factory

| 내게 소중한 친구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혼자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고, 조금씩 커가면서 어린이집과 학교를 거쳐 사회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면서 나만의 세상과 관계를 만들어간다.

누군가는 학창 시절의 친구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회에서 만난 인연이 평생 곁을 지켜주기도 한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물론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가끔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대학 동창들과 어울리며 추억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내게 소중한 친구는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함께해 온 여덟 명의 친구들이 떠오른다.

그 친구들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깊이 빠져 카톨릭대에 진학하고, 힘들다는 신학 공부를 마쳐 신부가 되었던 친구도 있다. 그러나 결국 미모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신부의 길을 내려놓고, 지금은 아들과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또 어떤 친구는 남쪽의 큰 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더 큰 꿈을 찾아 충청의 행정도시로, 다시 영국으로 훌쩍 떠났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와 묵묵히 공직의 길을 걷고 있다.

한때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녔지만, 조직의 답답함이 싫다며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백수 생활을 즐기던 친구도 있다. 그러다 터키로 건너가 현지 여성과의 사랑을 꿈꾸었지만, 결국 돌아와 지금은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다. 또 다른 친구는 변호사인 형님 부부의 든든한 사랑 속에서 자라 서울의 한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며 서로를 험담하며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친구도 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친구다. 이렇게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내게는 모두가 더없이 소중하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아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모두 함께 모이는 건 더더욱 힘들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마 이들이야말로 내 평생의 친구들일 것이다.

2025년의 절반이 어느덧 지나갔다. 아직 올해는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다가올 추석에는 꼭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또 얼마나 많은 웃음과 추억이 오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 얼른 만나자. 보고 싶다. 정말 많이.



MEET OUR COLLEAGUES

(The people of KwangShin are what makes our Company strong and great)



관리본부 구매팀 책임

장 태섭
Tae-Syup, ChangPurchasing Team /
Principle Manager

Q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이기에 기본을 되짚어 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업 활동의 핵심인 '영업'과 '구매' 두 영역 모두를 경험한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022년 정년을 맞이한 후 구매팀에서 해외 구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 태섭입니다. 1991년 영업부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해외 산업용 압축기 영업을 담당했으며, 이후 2011년에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약 14년 정도 구매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Q '영업'과 '구매'는 다소 상반된 성격을 지닌 업무로 느껴집니다. 당시 어떻게 구매 부서로 이동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업무 전환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당시 구매부장을 맡고 계셨던 권기현 부장님의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이어받아 구매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사는 입장이 되니 업무방식이 달라져야 했지만 결국 품질, 납기, 가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최종 구매 결정의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업무 전환이 가능했던 듯합니다.

Q 옛날 회사 소식지를 통해 장 책임님의 출장기사를 접하면 곧바로 계약으로 체결 소식으로 이어졌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영업 업무를 담당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발굴하는 모든 과정이 소중했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제 최초의 산업용 압축기 해외 직수출 거래였던 페트로베트남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정보망이 잘 갖춰지지 않았고, 해외 업무 경험도 부족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영업팀 모두가 늦은 밤까지 한마음으로 입찰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 노력의 결과로 해외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첫걸음이었지만 제품 경쟁력이 있었기에 그 이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태국, 이란 등 여러 해외시장 개척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Q 장 책임님과 같은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과 경험이 축적되어, 지금도 회사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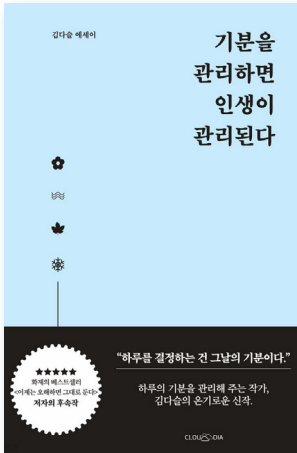
A 저도 정년이 지난 나이이다 보니 예전만큼의 열정을 지녔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항상 수기로 영업예산을 꼼꼼히 분석하고 제안 가격을 책정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구매팀으로 옮긴 후에도 철저히 정보를 조사하고 다방면으로 비교·분석해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신규 거래 발굴을 위해 직접 방문 조사도 시행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집 근처 편백나무 숲을 산책하고는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열정을 다해 함께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업본부 / 매니저

권유정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다.



기분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라진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엔 어떤 일을 해도 과정도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날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루의 모든 것들이 밝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기분. 하지만 기분을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루 안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 마음과 감정을 조금 더 참아내거나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상황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극복해낼 마음가짐 등등. 저자는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1장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나를 마주하고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환경과 기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2장 「마음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에서는 인간관계를 대할 때 스스로 지녀야 할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와 불필요한 관계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관계 디톡스를 안겨줄 조언들을 담고 있다. 3장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에서는 겨울이 지나면 언젠가 봄이 오듯이 결국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라는 저자의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4장 「마음 속 깊이 새길 온기」에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속에 꼭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원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책을 다 읽었을 때면 한결 더 세상을 맑고 또렷한 기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책소개 (김다슬 에세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즘, 내 마음에 와닿았던 책. 이 책의 제목처럼 '감정 조절'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느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범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위로의 문체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특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이 책 속 메세지에서 분명 많은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에 대한 자각과 마음 정리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나 역시도 이 책을 통해 나쁜 기분을 남 탓이나 상황 탓으로 돌렸던 과거를 후회하며 '감정의 주도권'을 공부하게 된 계기였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내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는 감정의 노예보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책은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준 책이다.

부드러운 양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징스램 양덕메트로점”

마산 양덕동에 위치한 양고기 전문점 징스램. 오픈한지 약 1년 정도 되어 깔끔한 내부와 청결한 매장을 갖추고 있고, 메뉴 구성이 굉장히 알찬 곳이다.

자칫 비리거나 질길 수 있는 양고기지만 징스램 양덕메트로점은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양고기를 즐길 수 있다. 대표 메뉴인 프렌치랙과 양갈비는 신선한 고기에 육즙이 가득해 함께 구워주는 야채와 곁들여 먹으면 느끼하거나 물리지 않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양파, 마늘, 방울토마토, 가지, 숙주 그리고 마씨앗이 제공되는데 특이하게 이 마씨앗은 굵고 나면 감자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눈앞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니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다 구워진 후에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마치 양고기 오마카세(?)를 먹는 느낌이다. 또 양고기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와사비와 간장소스, 청어알이 제공되는데 이 청어알은 보기와 달리 짜지 않아서 양고기와 함께 먹으니 정말 잘 어울렸다. 이렇게 다양한 야채와 소스를 곁들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고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냄새에 민감한 편인데도 양고기 특유의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프렌치랙과 양갈비 모두 질기거나 잡내 없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다. 후식으로 먹은 표고 갈릭밥은 밥에 마늘향이 배어있어 표고와 와사비와 양고기를 얹어 김에 싸 먹으면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의 빠질 수 없는 후식인 나가사끼 짬뽕라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국물이 아닌 하얀 국물인데도 국물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담백해 양고기를 먹고 난 후식으로 잘 어울렸다. 양고기부터 사이드 메뉴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징스램! 부드럽고 맛있는 양고기가 생각날 때는 징스램 양덕메트로점을 방문해 보자!

K KwangShin_pick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천동길 84 3층 301호

- 매일 16:30~23:00 (라스트오더 22:30)
- 빌딩 주차장 이용

58주년 장기 근속자

5년 근속자



10년 근속자



15년 근속자



20년 근속자



25년 근속자



30년 근속자



NEW 광신인

7월 입사자



모범 사원



이달의 사원

2025년 06월	
생산관리팀 박상진 매니저	생산조립팀 배철환 파트장
2025년 07월	
고객관리팀 서영권 책임	생산가공팀 이상우 사원
2025년 08월	
설계 1팀 허선화 선임	생산조립팀 허태기 파트장

SOG(Send Out Gas) Compressors for POSCO Gwangyang LNG Terminal



Positioned downstream of the BOG compressor or near the send-out line, the Send-Out Gas Compressor plays a key role in delivering compressed gas to customer pipelines or fuel system

KSOPTNL-2Stage, 2Cylinder, 1800KW, Water cooled Compressor Package (2sets)

- The frame lube oil system i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API-618 Figure G-5
- The closed-loop water cooling system follows API-618 Figure G-1, Plan-D
- Acoustical Simulation Study (Design Approach "3") has been applied



광신기계공업주식회사
KwangShin Machine Ind. Co., Ltd.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24 (52029)
124, Ogok-ro, Chirwon-eup, Haman-gun,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52029)
T. +82-55-589-8000

KWANGSHIN
Dependable Compressors